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3년도 제27호

### 강신욱교수의 스포츠칼럼

#### 스포츠혁신위원회가 남긴 것

임혜정 헬스인뉴스기자

### 얼차려에 폭행까지...구단 곧바로 KBO에 신고

#### 프로야구 SSG 선수단서 폭력사태 발생...내용이 좀 심각하다

위키�트리기사

### 제17회 아시아 여자주니어 핸드볼 선수권대회

#### 한국 여자주니어 핸드볼, 통산 16번째 아시아선수권 정상

배재흥 스포츠경향기자

### 프로입단대가 뒷돈감독들, 구속심사

#### ‘선수 입단대가 뒷돈’ 감독 오늘 구속심사

홍민기 YTN기자

### 제20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 후쿠오카 세계수영선수권 14일 개막...황선우 금빛 영역 도전

이정찬 SBS뉴스기자

### 프랑스 스포츠클라이밍 월드컵

#### ‘엄마 선수’ 김자인, 스포츠클라이밍 월드컵 4년 만에 금메달

KBS뉴스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강신욱 교수의 스포츠칼럼

## 스포츠혁신위원회가 남긴 것



지난 정권 시절인 2019년 새해 체육계는 성 추문 폭로 사태인 이른바 스포츠 미투 사건으로 얼룩지며 시작했다. 그해 2월에 정부는 스포츠계 인권 강화와 학생 선수의 학업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스포츠계 혁신을 위해 5개 관련 부처 차관과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된 스포츠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화려하게 발족시켰다. 물론 체육계의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재발 방지 약속이 번번이 지켜지지 않았던 원인도 혁신위 발족을 정당화했다. 이후 2020년 7월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혁신위의 존재감과 위세는 체육계에서 하늘을 찌르는 듯했다.

혁신위는 100여 차례의 회의를 통해 7차례의 권고안을 발표했고, 2020년 1월에 활동을 마무리했다. 주요 권고 내용은 주지하다시피 학기 중 주중 대회 참가 및 개최 금지, 최저학력 기준 도달 학생만 대회 참가, 최저학력 기준 미달 선수 체육특기자 선발 제외, 합숙소 전면 폐지 및 불법 찬조금 일절 금지, 전국소년체육대회를 학교 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이 참여하는 '통합 학생 스포츠 축전'으로 확대 개편, 전국소년체육대회 초등부를 권역별 학생 스포츠 축전으로 전환, KOC와 대한체육회의 분리 등이었다.

위 권고 내용 중 마지막인 KOC와 대한체육회 분리를 제외하고 학생 선수 훈련이나 대회와 관련된 대부분의 권고는 2019년 6월 4일에 발표한 2차 권고문 내용이었다. 이날 이후 체육계는 별집을 썩신 듯했다. 주로 엘리트 스포츠 지도자, 국가대표 선수 출신,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현장을 모르는 얼치기들의 탁상행정, 완장 짓거리, 대한민국 엘리트 스포츠 죽이기라며 권고안의 백지화를 주장했다. KOC와 대한체육회 분리 권고안인 6, 7차 권고안이 8월 22일에 발표되자 대한체육회는 역시나처럼 엘리트 스포츠를 죽이기라며 공식 반대 입장을 발표했고, 10월 14일 진천선수촌 국가대표 지도자 협의회도 동일한 입장을 천명했다.

엘리트 스포츠 지도자와 학부모를 중심으로 제기된 혁신위의 권고 내용 불복 운동은 결국 20대 대선 과정을 거치며 민의 수렴 명목으로 그 핵심 내용이 재검토 되었다. 급기야 2023년 1월 5일 문체부 업무 보고에서 박보균 장관은 학기 중 주중 대회 참가 금지, 학기 중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 소년체전 개편의 3개 권고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으로 규정하고 그 개선을 약속, 추진했다. 그 결과 한 예로서 2023학년도부터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의 학생선수 출석 인정일 수가 보장되었다. 초중고 학생 선수들의 수업 결손을 예방하고자 했던 혁신위의 핵심 의도가 무산된 상황이었다.

20대 대선과 맞물려 혁신위의 순수하고 이상적인 교육적 의도는 준비되지 않은, 현장을 모르는 아마추어 체육인들의 치기로 간주되었다. 이용수나 이영표 같은 엄청난 현장 전문가들이 있었음에도 말이다. 이러한 비판은 일찌감치 예견된 것이었다. 발족 초기부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했다. 그게 시작이어야 했다. 개혁에는 저항이 따른다는 오만방자한 소리 대신 인내심을 갖고 현장의 모든 소리를 소중히 경청해야 했다. 왜냐하면 생각과 방법이 좀 달랐지만 혁신위도 그랬고 현장의 지도자들, 그리고 학부모들도 공히 학생 선수의 장래와 체육계의 미래를 늘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혁신위는 그런 점에서 실패했다. 혁신위는 체육인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았고 심지어는 개혁의 걸림돌로 보았다.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많은 체육인들이 그렇게 느끼도록 혁신위는 처신했다.

처음부터 혁신을 목표로 하거나 오픈 이노베이션, 즉 어젠다나 방법을 외부에 의존하는 타입은 그 결과가 기대만큼 절대 크지 않다는 점을 혁신위는 간과했다. 구성원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혁신 과제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점도 소홀히 했다. 스포츠계의 인권을 되찾고 스포츠 기본법 제정을 권고하는 등 혁신위는 한국의 체육 문화를 새롭게 구축하려 했지만 오만과 독선으로 인해 체육인들을 분열시키고, 결과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얻는 것도 실패했다. 겸손과 인내 그리고, 개방된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 공공 마인드인지 혁신위는 새삼 일깨워 주고 있다. 스포츠계 혁신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혁신위의 영욕은 그래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글 : 강신욱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자료 출처: <http://www.health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968>

# 프로야구 SSG 선수단서 폭력사태 발생... 내용이 좀 심각하다

프로야구 SSG 랜더스 선수단 내에서 개별 폭행과 단체 가혹 행위가 일어났다.

10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최근 SSG 2군 소속 내야수 A가 인천 강화 SSG퓨처스필드에서 점심시간에 자신보다 어린 선수들을 모아 놓고 단체 얼차려를 지시했다. 올해 신인인 내야수 B가 예의 없게 굴었다는 게 얼차려의 이유였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얼차려를 받은 투수 C가 원인을 제공한 B를 타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SSG 코치가 우연히 B의 몸 상태를 확인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코치가 이를 구단 수뇌부에 보고했다.

SSG는 곧바로 한국야구위원회(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 KBO는 SSG 구단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전달받고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단순 얼차려가 아닌 폭행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KBO는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KBO 관계자는 위키트리에 "현재 조사 중이다. 사실관계가 확인하는 대로 상벌위원회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SSG는 전신인 SK 시절인 지난 2020년에도 2군 선수단에 있던 서상준, 최재성이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 일탈을 했고, 김택형과 신동민이 해당 선수에게 물리적인 체벌을 가하는 폭행 사건이 일어나 물의를 빚었다.

SK는 이를 KBO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 징계를 내렸으며 1군에 있던 고참급 투수 정영일은 선수들의 기강이 무너졌다고 후배 선수들에게 얼차려를 지시한 게 KBO 조사위원회를 통해 뒤늦게 밝혀졌다.

KBO 상벌위원회는 서상준과 최재성에게 30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200만 원, 사회 봉사활동 40시간, 동료의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전의산에게 15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다.

후배를 때린 김택형과 신동민에게 30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500만 원을, 후배 선수들에게 얼차려를 지시한 투수 정영일에게는 10경기 출장 정지를 처분했다. SK 구단엔 벌금 2000만 원을 부과했다.



# 한국 여자주니어 핸드볼, 통산 16번째 아시아선수권 정상

한국 19세 이하 여자주니어 핸드볼대표팀이 통산 16번째 아시아선수권 정상에 올랐다.

한국은 지난 9일 홍콩에서 열린 제17회 아시아 여자주니어 핸드볼 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중국을 34-15로 크게 이겨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은 전반 6분 만에 이해원(대구시청), 김서진(일신여고), 김민서(삼척시청)의 연속 득점이 터져 기분 경기를 풀어나갔다.

전반을 21-7로 마치고 승기를 잡은 한국은 후반에도 김민서를 앞세워 득점 세례를 퍼부으며 중국에 19점 차 완승을 했다. 김민서는 이날 상대 골망을 9번이나 흔들었다.

한국은 지난 2019년 레바논에서 열렸던 제15회 대회 이후 4년 만에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다시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한국은 코로나19 여파로 참가하지 않았던 2022년 제16회 대회를 제외하면 이 대회에서 단 한 번도 우승을 놓친 적이 없다.

한국은 이번 대회 상위 5개국에 주어지는 2024년 북마케도니아 세계 여자주니어 선수권대회 출전권도 얻었다.

한국의 주포로 활약하며 팀을 6전 전승의 '퍼펙트 우승'으로 이끈 김민서는 이번 대회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이해원과 김서진은 각각 최우수 라이트백과 레프트윙으로 뽑혔다.

YTN

# ‘선수 입단 대가 뒷돈’ 감독 오늘 구속심사

프로축구 구단 입단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프로·대학 축구단 전직 감독들이 오늘(11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1일) 오전 10시 안산 그리너스 FC 임종현 전 감독과 전 연세대 축구부 감독 신 모 씨, 중개인 최 모 씨 등 세 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엿니다.

임 전 감독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선수 두 명을 해외구단에 입단시켜주는 대가로 중개인 최 씨에게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대학 축구부를 이끌던 신 전 감독 역시 프로구단에 선수 3명을 입단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최 씨에게 6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는 두 사람 외에 대학 감독 김 모 씨와 코치 신 모 씨에게도 프로구단에 특정 선수를 선발해달라고 청탁했는데, 이런 식으로 건넨 뒷돈만 모두 1억2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 전 감독과 최 씨는 프로팀에 입단시켜주겠다고 속여 선수들에게서도 직접 돈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후쿠오카 세계수영선수권 14일 개막... 황선우 금빛 영역 도전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수영 축제인 국제수영연맹 세계선수권대회가 오는 14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막합니다. 약 200개 나라, 2천4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여섯 종목에서 75개의 금메달을 놓고 경쟁합니다.

14일부터 22일까지 후쿠오카현 수영장에서 다이빙 경기(금메달 13개)를 치르고, 같은 기간 마린 메세 후쿠오카홀에서 아티스틱 스위밍 경기(금메달 11개)가 펼쳐집니다. 오픈워터 스위밍은 모모치 해변공원에서 15일부터 20일까지 열립니다.

하이 다이빙은 25~27일 모모치 해변공원 특설 무대에서 팬들을 만나고, 수구는 16일부터 29일까지 마린 메세 후쿠오카홀에서 열전을 벌입니다. 가장 주목받는 경영 경기는 마린 메세 후쿠오카홀에서 23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됩니다.

한국 수영의 간판 황선우는 박태환 이후 12년 만에 금빛 역영에 도전합니다. 지난해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회에서 자유형 200m 은메달을 차지해 우리나라 경영 선수로는 11년 만에 세계선수권 시상대에 섰던 황선우는 이번 대회 자유형 100m와 200m, 단체전인 계영 800m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특히 주 종목인 200m에선 올 시즌 세계 1위 기록(1분 44초 61)을 보유하고 있어 전망이 밝습니다.

여자 경영의 살아 있는 전설 러데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러데키는 자유형 200m, 400m, 800m, 1,500m에 출전합니다. 주 종목 자유형 800m에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세계선수권 5연패를 달성한 러데키는 2023년에도 세계 1위 기록(8분 07초 07)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500m에서도 세계선수권 4회 우승에 성공했고, 올해 15분 29초 64의 세계 1위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5개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 19개를 따낸 러데키는 이번 대회에서 3개 이상의 금메달을 추가할 경우 러시아의 아티스틱 스위밍 선수 스베틀라나 로마시나(21개)를 제치고, 역대 여자 선수 중 최다 금메달리스트가 됩니다.

# ‘엄마 선수’ 김자인, 스포츠클라이밍 월드컵 4년 만에 금메달

‘엄마 선수’인 ‘암벽여제’ 김자인이 프랑스 샤모니에서 열린 스포츠클라이밍 월드컵에서 우승해 4년 만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준결승 4위로 결승에 진출한 김자인이 신중하게 암벽을 살피는데요.

이어 멋진 점프로 난코스를 통과하자 관중들의 박수가 쏟아집니다.

집중력을 발휘한 김자인은 43번 홀드까지 터치해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8명 중 이제 남은 선수는 제2의 김자인이라 불리는 서채현.

하지만 준결승 1위로 올라온 서채현이 고리 한 개를 건너뛰 실수로 중도에 내려오고 맙니다.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는 대표팀 후배를 격려해 준 김자인.

동시에 김자인의 금메달이 확정됐습니다.

김자인은 4년 만이자, 역대 최다인 월드컵 리드 금메달 30개를 획득했습니다.

딸 출산 이후 은퇴까지 고민했던 ‘엄마 선수’였기에 더욱 특별했습니다.

[김자인/스포츠클라이밍 국가대표 : "최선을 다해서 정말 기쁩니다. 아마 자고 있을 딸에게 말하고 싶어요. '규아야 사랑해'"]

# 주간 스포츠 소식

이강인, PSG 입단 공식 발표... "세계 최고 선수들과 모험 시작하고파" (종합)

<https://www.news1.kr/articles/5102364>

미 체조선수 성폭행 '360년형' 복역 중인 주치의, 교도소서 흥기 찢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449022&code=61131111&cp=nv>

러시아 클라이머 '중립선수'로 대회 출전

<http://san.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81>

조규성 덴마크행, 유럽 현지도 가웃... "선수·에이전트 만족하나" 지적

<https://isplus.com/article/view/isp202307110017>

아시안컵 일본이 우승하자... 위안부 할머니 조롱한 극우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3070544337>

대한스쿼시연맹 '2023 행복나눔 스쿼시교실' 개최

[https://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307110837003&sec\\_id=530101&pt=nv](https://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307110837003&sec_id=530101&pt=nv)

CJ제일제당, 후쿠오카 세계선수권 출전하는 한국수영대표팀 지원

<https://www.yna.co.kr/view/AKR20230710115200007?input=1195m>

'e스포츠 지역연고제' 법안 발의, 찬반 의견은?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853>

e스포츠 지역 연고제, 지역 불황과 팀 적자 구해낼까?

<http://www.gamep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380>



# 체육시민연대

##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